

주지를 선명하노라

창천에 태양이 빛나고 대지에 청풍이 불도다. 산정수류 하며 초목창무 하며 백화난발 하며 연비어약 하니 만물 사이에 생명과 광명이 충만하도다.

동방 아세아 무궁화 동산 속 2천만 조선 민중은 일대 광명을 견하도다, 공기를 호흡하도다. 아, 실로 살았도다, 부활하도다. 장차 혼신용력을 분발하여 멀고 큰 도정을 건행코자 하니 그 이름이 무엇이뇨, 자유의 발달이로다.

세계 인류 운명의 대륜은 한번 회전하도다. [짜아]는 가고 카이사는 쫓기도다. 자본주의의 탐람은 노동주의의 도전을 받고 강력에 기본한 침략주와 제국주의는 권리를 옹호하는 평화주의와 정의를 근본한 인도주의로 전환코자 하는도다.

그런 즉 인민으로 말미암은 자유 정치와 노동으로 말미암은 문화 창조와 정의 인도에 입각한 민족 연맹의 신세계가 전개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오인은 몽상가가 아니라 또한 현실에 즉 한 자로다. 어찌 이상과 하늘만 보고 사실과 땅을 망각하리오. 세계의 대세를 여실히 논할진대 일편에 신세력이 있는 동시에 우일편에 차와 대립하는 구세력이 있어 서로 쟁투하난도다. 환언하면 정치로나 경제로나 사회로나 문화로나 각 방면에 해방과 개조의 운동이 있는 동시에 곧 이 모든 것을 억압하려는 일대 운동이 존재하도다. 이는 사실이라 뉘 감히 부인할 바이리오. 오후라 친구 충돌과 진보 보수의 다툼이 어찌 이 시대에 만 특유한 바리오, 온 역사를 통하여 상존하는 것이로다.

그러하나 일양내복에 적설견빙이 융해하고 백화만물이 각서기생함은 그때가 옴이라 누가 능히 팽연한 춘의 힘을 억거하리오. 이와 같이 친구의 충돌은 이미 신의 올 때 됨을 표시함이오 구의 갈 때 됨을 명고 함이라, 필연의 세는 인력으로 좌우하지 못할 바라, 신이 기필코 성공하고 구가 반드시 퇴거하리니.

오인은 신시대가 이미 왔다 아니하노라, 신세계가 벌써 전개되었다 아니하노라, 오직 흑암중으로서 쟁투로써 해산의 고를 가지고 웅웅한 신문명의 파와 명명한 신시대의 서광이 멀리 수평선상에 보이도다 하노라.

보이도다 보라, 2천만의 남녀 민중이 그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을.

이러한 때에 동아일보는 생하도다, 회라 그 생이 어찌 우연하리오.

회고컨대 일한합병 우자십년 그 사이에 조선 민중은 일대 악몽의 습한 바 되었도다. 그가 또한 사람이라 어찌 사상과 희망이 없었으리오. 그러나 능히 서치 못하며 그가 또한 사회라 어찌 집합적 의사와 활력의 충동이 없었으리오. 그러나 능히 달치 못하며 그가 또한 민족이라 어찌 고유한 문명의 특장과 생명의 미묘함이 없었으리오. 그러나 감히 발치 못하였으니, 실로 개인이 간혹 경험하는 바 부르짖고자 하되 개구치 못하며 달음질하고자 하되 용신치 못하는 그 악몽에 조선 2천만 무고 민중은 빠졌었도다.

이는 곧 사지라, 함정이라, 자유와 발달을 기하지 못할 곳이었도다. 조선 민중은 실로 고통을 감하도다. 혹은 울고 혹은 노하였도다. 어찌 현대 민중뿐이라 하리오. 4천년 역사적 생명이 분개하도다. 그는 조선 인민이 홀로 그 생을 달치 못하며 그것을 득지 못함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때가 한번 변하여 언론 자유가 다소 용인된다 하매 조선 민중은 그의 의사를 표현하며 그의 전도를 인도하는 친구가 될 자를 열망으로 기대하였도다.

이에 동아일보가 생하였으니 그가 어찌 우연하다 하리오. 실로 민중의 열망과 시대의 동력으로 생하다 하노라.

주지를 좌에 선명함으로써 창간사에 대하고자 하노라.

(1) 조선 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소수 특권 계급의 기관이 아니라 단일적 전체로 본 2천만 민중의 기관으로 자임한 즉 그의 의사와 이상과 기도와 운동을 여실히 표현하며 보도하기를 기하노라.

(2)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이는 국체나 정체의 형식적 표준이 아니라 곧 인류 생활의 일대 원리요 정신이니 강력을 배척하고 인격에 고유한 권리 의무를 주장함이라, 그 용이 국내 정치에 처하여는 자유주의요, 국제 정치에 처하여는 연맹주의요, 사회생활에 처하여는 평등주의요, 경제 조직에 처하여는 노동 본위의 협조주의라. 특히 동아에 재하여는 각 민족의 권리를 인정한 이상의 친목 단결을 의미하며 세계 전국에 재하여는 정의 인도를 승인한 이상의 평화 연결을 의미함이라. 경연하건대 그 체는 폭력 강행을 불가라 하고 양심의 권위와 권리의 주장으로써 인생 각반의 간계를 규율코자 함이니 고자의 소위 왕도의 정신이 곧 이것이라, 오인은 천하 인민의 경복과 광영을 위하여 이를 지지하노라.

(3)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

이는 개인이나 사회의 생활 내용을 충실히 하며 풍부히 함이니 곧 부의 증진과 정치의 완성과 도덕의 순수와 종교의 풍성과 과학의 발달과 철학 예술의 심원오묘라, 환언하면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세계 문명에 공헌케 하며 조선 강산으로 하여금 문화의 낙원이 되게 함을 고창하노니 이는 곧 조선 민족의 사명이요 생존의 가치라 사유한 연고라.

요컨대 동아일보는 태양의 무궁한 광명과 우주의 무한한 생명을 천리 강산 천만 민중 가운데 실현하며 창달케 하여 자유발달의 국을 맺고자 하노니 (1) 조선 민중이 각정성명하여 보합대화하는 일대 문화의 수립을 기하며 (2) 천하 만중이 각득기소 하여 상하여 천지로 동류하는 일대 낙원을 건설함에 동력공조하기를 원함은 본 일보의 주지로다.

그러나 본사의 전도가 심히 험하도다, 그의 운명을 누가 가히 예측하리오, 오인은 오직 민중의 친구로서 생사 진퇴를 그와 더불어 같이 하기를 원하며 기하노라.